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아이가 달려와 안기기보다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먼저 듣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아버지의 존재란, 원래 아이들에게 낯선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았다. '가장'이라는 두 글자는 내 어깨 위에 무거운 갑옷처럼 얹혀 있었다. 돈을 벌어오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배웠고, 그 역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정작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법이나, 아내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다. 아니, 서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걸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사랑을 대신했다. 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아내가 “우리 대화 좀 하자”고 할 때마다 나는 슬며시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았다. 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변화는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어느 주말, 아내가 몸살로 앓아누웠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아이의 아침을 챙겨야 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무엇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다. 계란 하나 깨는 것도 어색해서, 껍데기가 반쯤 밥그릇에 빠졌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다. “아빠, 이것도 못해?” 나는 순간 부끄러움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마흔이 넘도록 나는 내 자식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유튜브를 보며 계란말이를 연습했다. 처음엔 다 태우거나 설익어서 아내와 아이가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완벽하게 만들려는 마음보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서너 번의 실패 끝에 그럴듯한 계란말이가 완성되던 날, 아이가 엄지를 치켜세우며 “아빠 최고!”라고 외쳤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어떤 칭찬보다 크게 다가왔다.

돌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밤새 아이의 열을 재고 약을 먹이는 동안, 나는 그제 옆에서 잠을 잤다. “당신은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라는 핑계로.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아이가 아픈 밤이면 나도 함께 일어난다. 체온계를 어떻게 쓰는지, 해열제는 몇 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하는지, 아이가 토했을 때 어떻게 눕혀야 하는지, 하나씩 배워나갔다. 서툴러서 아내에게 몇 번이고 되물곤 했지만, 아내는 짜증 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왔는지 깨달았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도 조금씩 연습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퇴근길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하루 고생했어. 고마워.”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용기 내어 보냈다.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냥, 이제라도 말해주고 싶어서.” 그 대화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더 솔직하게 서로의 하루를 나누게 되었다.

여전히 나는 서툴다. 아이의 준비물을 깜빡하기도 하고, 국을 너무 짜게 끓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서툰 순간들이 부끄럽지 않다. 완벽한 아빠, 완벽한 남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 아이는 언젠가 내가 만든 계란말이보다, 서툰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지내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 서툴러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다. 나는 오늘도 서툰 손으로 계란을 깨고, 서툰 말투로 마음을 전한다. 함께라면, 그 서투름조차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